

# 못난이 과일 공급 확대... 축·수산물 할인 지속

과일 수요 분산위해 수입과일 늘려  
한우·한돈 최대 50% 할인행사 계속  
올 과일 실패없도록 생육관리 강화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사과·배 등의 비정형과(못난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솟은 채소 값과 관련해서는 노지채소를 선제적으로 비축·방출하고, 시설채소의 출하 촉진 및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 및 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 및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판촉계획은 하나로마트가 사과 400톤과 배 100톤, 이마트가 사과



이달 상순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과일 선물세트. /뉴시스

150톤, 홈플러스가 사과 50톤과 배 10톤, 롯데마트가 사과 200톤 등이다.

또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해 할당관세도 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한다.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해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 수입과일의 대형마트 배정량은 총 2만 톤(바나나 1만3000톤, 파인애플 3600톤, 자몽 300톤, 망고 1800톤, 아보카도 500톤)이다.

채소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

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월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한다.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예정이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출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해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

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연장된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월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3월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

## 윤진식 무역협 회장 취임 “수출 증대에 올인할 것”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무역협은 2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윤 전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무역협은 앞서 지난 16일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윤 전 장관을 신임 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무역의 활력을 되찾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무역업계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애로 사항 발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 추진 △민간간 통상활동 강화 등을 무역협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케팅·금융·물류·해외 인증 등 업계 주요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여건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온라인유통 매출 27개월만에 최대 성장

1월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8.2% ↑  
대형마트 9.2% ↓... 설 특수 2월 분산  
편의점, 음료·가공 등 전 품목 호조세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치 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된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14.5조원) 대비 8.2% 증가한 1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 증가폭은 2021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치다. 온라인 매출은 서비스/기타(24.7%), 식품

(22.4%), 생활/가정(18.6%)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휴대폰 신기종 사전예약 프로모션으로 가전·전자 품목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설 명절 여행상품·선물 예약수요 증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간편식 판매 증가 등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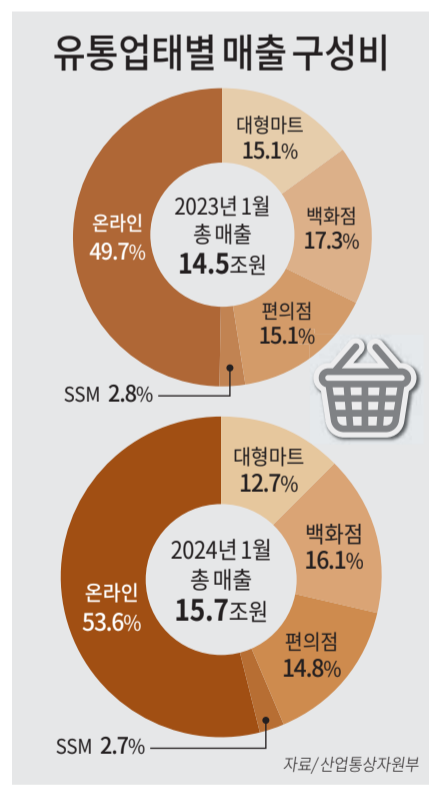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0.7%), 편의점(6.1%), 준대규모점포(SSM, 7.1%) 등에서 상승했지만,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되면서 대형마트(-9.2%) 매출이 큰 폭 하락하며 전체 0.3%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잡화(-21.3%), 가정/생활(-19.4%), 스포츠

(-18.6%) 등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백화점 매출은 의류·패션 부문이 부진했으나 가정용품, 해외유명브랜드 판매 증가로 소폭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은 근거리 소액 쇼핑·집밥족이 늘며 즉석식품, 음료·가공식품 등 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SSM 매출은 농수산물, 신선/조리식품 등 식품 부문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매건수는 대형마트·백화점은 하락했으나 편의점·SSM은 증가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백화점은 상승했으나, 대형마트·편의점·SSM은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5.6% 줄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이차전지 고농도 폐수처리 지원 논의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론회  
'민관합동 기술지원반' 운영 방침

환경부가 26일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해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비엔디파트너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해양 방류 허용범위 및 개선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염 증명 제도란 염폐수의 성분이 주로 바닷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생태독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양 방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

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가 급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봤다”며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이날 제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오는 27일에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계,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

이다.

이를 통해 고염폐수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영 증명 지침서 마련을 추진하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영향은 최소화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고용부 청년 빠른 취업·적응 지원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정부가 구직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이성의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서울 서초구 소재 평화이츠를 방문,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 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 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